

쾌적한 環境保全 전략



玉致相 / 고신대학 보건학과(환경과학)教授

인간은 환경의 포용능력 속에서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틀(frame)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은 바로 인간보전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억제시켜 쾌적한 환경속에

서 아늑하게 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가 무분별하게 환경을 이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욱 즐기고, 더욱 편안함을 추구하는동안 자연생태계의 환경질서는 환경의 包容能力을 넘어서 攪亂되고 파괴되어 커다란 당면과제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등의 환경오염문제 뿐만이 아니라 식량, 고용, 주택 및 사회보장등 여러면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지적·영적인 갈등까지 겪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하기보다는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문제를 골치아픈 문제로 여기면서 걱정만하고 있을수도 없다. 모든 환경문제는 대결적이고 기피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설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깨끗한 강과 바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는 이제 더 이상 거저 얻어지는 자유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생활의 안락함까지 절제해가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원의 보전전략을 수립하여야 되는가?

첫째로 육체적으로 안전해야 된다.(육체적인 보전전략)

육체적 건강은 국가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은 새로운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유독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는 경제가 발전될수록 증가될 것이며 대부분 급성적이라기 보다는 축적적이며 만성적이기때문에 잠재적인 건강장해를 예측할 수 없을때가 많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인구집단이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때 현존하는 건강장애의 위험가능성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환경요인에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오염원의 관리 및 오염물질의 제거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둘째로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해야 된다.(정신적인 보전전략)

인간의 정신은 육체와 지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그가 생활하는 환경상태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과도한 경제성장과 가속화되는 기술발전은 인간생활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빈부의 격차와 더불어 불만감이 도리어 높아지고 인간관계의 소외화로 인한 고독감이 증대되는등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현상은 에너지, 주택, 상하수도시설 및 도시교통등 각종 시설의 부족과 소음, 진동, 악취등의 생활환경의 악화로 정신적·심리적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정신적·심리적인 불안은 다수의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심각하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이 주민들에게 충동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집단적인 행동까지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편익해야 된다.(사회적인 보전전략)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집단은 환경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쉬지않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악화된 환경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존재양식뿐만이 아니라 의식구조까지 급속하게 변화시킨다. 더우기 사회환경이 고밀도화, 거대화,

대규모화되면 될수록 환경은 더욱 중요하고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원의 무계획적인 이용과 관리, 비경제적인 남용은 인적·물적자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인간환경 및 자연자원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전체로 본 대기, 물, 자연경관 등의 오염은 공공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는 결국에는 사회비용화되어 파괴된 자연의 생태환경과 자원기반 그리고 상실된 쾌적자원을 복원시키거나 새로운 자원을 개발시키는데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된다. 그 대책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후에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넷째로 지적이며 심미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된다.(지적인 보전전략)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고도의 지적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추구할 수가 있다.

환경은 수려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개체가 독자의 개성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대도시화, 대량생산화, 대량소비화에 따른 물질적인 추구로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이 망각되기 쉽고 획일화되어 간다.

이러한 미적 추구는 생활환경이 인공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무시되어 온 경향인 바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사전영향평가에서 개발이나 보전이나의 관점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영적인 보전전략)

쾌적한 환경보전은 인간의 도덕적·논리적인 차원에 가장 크게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은 산업발전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기업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전 사회에 피해를 강요하는 데서 벗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투자는 가외의 비용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의 필수비용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환경보전의식을 기업가에게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지역주민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할 우리사회의 지적지주로서 환경보전의 정신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아울러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각 기업은 주변주민들의 건강문제나 쾌적한 환경보전에 관하여 지역주민과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은 기업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아래 기업가가 지역주민을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할때 회사경영이 잘된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재인식하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보전은 당국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에게 비추어 참 마음으로 悔改하고 惡化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이웃 형제자매들의 안타까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정보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관리체계적인 보전전략)

환경보전에 대한 지식의 결여나 정보의 결핍은 현재의 모든 환경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늘 환경오염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모든 오염요인 및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

로서 효율적인 오염방지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관리 정보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환경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는 육체적인 차원을 근간으로 하고 정신적·사회적·지적·영적인 차원을 그 속성으로 하여 통합시키므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환경관리 정보체계는 국소적인 사후대책보다는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사전예방대책을 언제나 강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수립, 시스템 분석, 시스템설계, 시스템실시 및 시스템평가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결언으로서 환경은 모든 인간에게 육체적인 위험요인은 물론 정신적·사회적·지적·영적인 피해요인도 없이 쾌적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현존하는 환경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보체계를 수립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악화되어가는 환경을 다시 쾌적한 환경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나 경제문제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환경오염문제 즉 공해문제이다.

그러므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국, 기업가,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하자.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길은 바로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